

신행 소식

“정신적 벽 깨뜨릴 때 본 모습 나와”

수불 스님, 프랑스 기메박물관서 간화선 지도



수불 스님은 10월 29~31일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실천과 강연을 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10월 29~31일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했으며, 11월 1일에는 파리 근교 길상사에서 특별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번 프랑스 간화선 실천과 강연은 기메동양박물관과 길상사 주지 해월 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 간화선 대중교도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 수행법을 프랑스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은 불상과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동양문화와 불교문화의 전시·교육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첫째 날, 수불 스님은 박물관 내 북대관에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해 설명하고 화두참구를 통한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또한 30여 참가자들은 죽

비 소리에 맞춰 스님과 면벽참선을 했다. 이때 수불 스님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석가, 마르보살이 누구의 노예라고 하는 데 누구의 노예인가’, ‘손가락을 튀겨 보세요, 무엇이 손가락을 튀기게 합니까?’ 라는 화두를 내리면서 “이런 말에 감각함이 형성된다면 이 막힌 마음을 정신적 벽으로 보고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라. 이 정신적 벽을 깨뜨릴 때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화선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는 간화선수행을 처음 접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호흡법 수행과 비교하며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이해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한편 수불 스님은 11월 1일 파리근교 길상사에서 열린 특별초청법회에서 현지 교민을 포함하여 100여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법문을 펼쳤다.

이나는 기자

100일 안거수행으로 ‘참 나’ 찾기를

전국 사찰 및 시민선방 재가자 동안거 결제

한겨울 동안 수행에 전념하는 동안거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갑오년 동안거는 12월 6일(음력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5일(음력 1월 15일)까지다.

스님들은 동안거 기간인 3개월 동안 외출을 금하고 한 곳에 모여 참선 정진을 한다. 이 기간에 도심사찰과 시민선원 등 수행단체에서도 재가자를 위한 동안거 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은 3개월간 번뇌를 녹이고 참 ‘나’를 찾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매년 1백여 재가불자들이 안거에 동참하는 용화선원(032-872-6061)은 재가자 안거의 효시라 불리는 곳이다. 12월 6일 11시 동안거 결제 및 화두·불명·십선계 수계법회를 여는 용화선원은 선원장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산 해운정사(051-746-2256)는 시민선원을 운영해 1972년부터 철마다 100여 명의 재가자가 안거를 지내고 있다. 100여 명이 정진할 수 있는 선방과 지대방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안거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재가자와 스님을 같은 선원에서 정진시킨 항곡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법제자이자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043-423-7100)



한마음선원은 동안거 기간 오전·오후로 나누어 재가자 안거 수행을 진행한다.

용화선원 수계법회·결제 동시 열어

구인사 한달수도 12월 22일~1월 21일

성철 스님 백일법문 특별강좌도 열려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1개월 안거 원칙에 따라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동안거 한달 수도’를 실시한다. 매년 평균 1500여명이 동참하는 안거 수도는 구인사를 비롯한 지역사에서 안거가 진행되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동안거를 실시, 1500여명이 동참하는 결제에 들어간다. 안거를 마치면 이수증도 발급된다.

서울 조계사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자율

선원(02-768-8525)에 80명의 방부를 들이고 매일 정진을 진행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자율정진을 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높은 참가자에 한해 안거증을 발급한다. 또한 조계사는 해마다 동안거와 하안거 해제일, 정월 대보름 등을 전후해 신도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생법회를 열어 나눔 정신과 수행을 통해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해왔다. 조계사는 이번 안거 기간 동안 ‘나눔과 수행의 동안거’를 주제로 보름, 초하루, 미타제일에 동안거 합동천도재를 지내며 2015년 3월 8일에는 대구 동화사에서 ‘나눔과 수행의 동안거’ 회향을 갖는다.

목동 국제선센터(02-2650-2200)는 12월 6일 동안거 입제식을 열고 90일 관음기도를 실시하며, 안양 한마음선원(031-

470-3100)은 동안거 기간 동안 오전·오후로 나누어 정진에 들어간다. 입제식은 12월 5일 오후 7시 본원 5층 법당에서 열리며, 안거 수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9시 30분~10시 50분), 오후(19시 30분~20시 50분)에 진행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바른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2015년 1월 7~13일, 2월 7~13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국제선센터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박 7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듣는 강좌도 마련된다.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공동으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개정 증보판 간행기념으로 ‘백일법문’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1661-1108)는 동안거를 맞는 12월 11일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의 중도사상을 바로 알아 영원한 행복을’ 주제로 열린다.

강좌의 증명 법사는 고우 스님과 원택 스님이며, 동국대 김성철 교수, 불광연구원 서재영 박사, 한국문화연구원 박희승 교수 등이 강사로 △불교의 본질 △중도사상 △근본불교사상 △천태종의 중도사상 등을 진행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 불법 느껴요”

봉은사, 시청각장애인과 금강경 봉헌 및 무차법회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정토세상을 이룰때까지 정진해 가겠습니다.”

장애를 넘어 부처님 앞에 대중이 하나로 되는 무차법회가 열렸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11월 16일 법왕루에서 시작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40명과 함께 금강경 봉독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이 대표로 우리나라 최초 점자 금강경을 부처님 전에 봉헌했다. 점자 금강경은 11월 9일 광림사 연화원 해성 스님이 발간한 것으로 12월에는 점자 법화경도 발간 예정이다.

봉헌과 함께 광림사 연화원 해성 스님을 대표로 시청각 장애인들과 불자들은 함께

법원문을 낭독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저희들은 금강 반야바라밀경을 두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마음과 손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울러 저희들의 손끝을 통해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 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대중들은 집진스님의 목탁에 금강경 1독을 독송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금강경으로, 청각장애인들은 해성 스님의 수화로 독송에 동참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살핌이 부족했다”며 “모든 대중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법당의 안내견 출입이 허락되기도 했다.



봉은사 일요법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이날 봉헌된 점자 금강경으로 일반불자들과 함께 독송하고 있다.

법당의 안내견 출입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불교계에 요청해왔던 부분이다.

한편, 법사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나섰다.

금강경 3만독을 봉독한 법산 스님은 금

강경 독송의 의미’란 주제로 한 법문에서 “금강경의 근본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7대종단과 함께한 생명살림 축제

불교상담개발원,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 개최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단은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선언 선포식’을 열고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 종교 단체들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상담지식을 갖춘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이 삶의 괴로움으로 좌절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단은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선언 선포식’을 열고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는 이들을 치유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이나는 기자

Advertisement for 'Sachal Bepdang Amp'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featuring various audio equipment like amplifiers, speakers, and microphone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Yoko Music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Yangjikukak' (양지국악사)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like a large drum (Janggu) and a gong (Gonghyeon),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Seoul and Incheon branches.